

일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조사

김설희 · 김춘희¹ · 손가연² · 양송이³ · 조미숙⁴ · 오상환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 ¹건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 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 ³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및 연구소 · ⁴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in the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Seol-Hee Kim · Chun-Hee Kim¹ · Ga-Yeon Son² · Song-Yi Yang³ · Mi-suk Cho⁴
· Sang-Hwan Oh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Ko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²Department of Oral b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³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⁴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Received** : 20 May, 2014
Revised : 27 September, 2014
Accepted : 7 October, 2014**Corresponding Author**Sang-Hwan 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Daejeon 302-781, Korea,
Tel : +82-42-600-6393
E-mail : dentsh27@konyang.ac.kr**ABSTRACT****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in the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00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in Daegu and Busan. Data were analyzed by SPSS 18.0 program.**Results** : The oral health care was maintained by innately healthy mouth(49.5%), dentists(48.5%), public health centers including institution and dentistry(46.5%), regular visit to dentistry(44.0%), and ingestion of healthy food(38.5%). Fifty eight percent of the respondents(116 persons) agreed that regular and proper toothbrushing is the most important behavior to maintain the healthy teeth. The regular visit to dental clinics(Wald=7.076, p=0.008) and an oral care by specialist (Wald=5.210, p=0.022) influenced on elderly oral health status(p<0.05).**Conclusions** : The oral health car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workers in the nursing homes that the education can improve the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oral health.**Key Words** : oral health care, elderly, worker in the nursing home**색인** : 구강건강관리, 노인, 노인요양시설

서론

연령 증가 시 구강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변화는 마모교모로 인한 지각과민, 치아상실로 인한 교합관계 이상, 무치악으로 인한 안모 변화, 구강건조증, 미각 저하, 구강 내 작열감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 즐거움'이 저하¹⁾되고, 영양섭취 장애로 인해 전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전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치료비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감소시켜 노인 자신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 및 국가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2,4)}.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능(저작, 발음) 제한율은 51.4%, 저작 불편 호소율은 47.5%, 잇몸병의 경험률은 80%, 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장착하는 비율은 70%이다⁵⁾. 그 외에도 금속성 의치 사용으로 구강점막이 손상되고, 구강상피세포의 재생능력 저하로 구내염 발생이 증가되는 등⁶⁾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전문적인 구강진료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노인일수록 구강진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72.9%가 구강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아의 동통, 시린 이 통증, 턱관절 동통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이 35-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노인인구 증가는 구강건강 악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신질환으로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은 여성의 사회참여, 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요양시설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다⁹⁾. 노인 보건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매 노인이나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의 입소가 용이해졌고,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케어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재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분류된다. 요양시설 이용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많으며 이들의 자가구강관리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구강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 내용 중 구강관리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의 한 부분에 속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¹⁰⁾. 교육과정 중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은 개인위생간호 전체 5시간 이론 중 극히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¹¹⁾.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 제공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후 노인의 구취와 영양소 섭취량에 관한 연구¹²⁻¹⁴⁾가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

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경험과 실천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중요성 인지도와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경험 등을 조사하여 구강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환자에게 가장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시설에서의 구강보건전문가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부산)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9개 기관을 편의 추출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결측값이 많고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설문 6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74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36명, 물리치료사 5명, 작업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24명, 사무원 7명이었고, 종사자 분류는 요양보호사, 간호 직업군(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직업군(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사무원)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김¹⁵⁾, 김¹⁶⁾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총 11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종,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경험),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6문항(정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 전문가 구강관리,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 구강건강 선천성, 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치료 연계)이었다.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에 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로 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51$ 이었다.

3. 통계분석

SPSS 18.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를 기술통계 하였다. 또한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문항은 신뢰도 검증 후 문항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Gender	Male	24	12.0
	Female	176	88.0
Age	20-29	46	23.0
	30-39	48	24.0
	40-49	63	31.5
	50≤	43	21.5
	Education(Include in school)	Below high school graduate	45
	More than junior college	155	77.5
Job classification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74	37.0
	Nursing profession	68	34.0
	Other profession	58	29.0
Experience in elderly oral health care education	Yes	79	39.5
	No	121	60.5
Total		200	100.0

Table 2.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N=200)

Classifications	m	SD
Regular visit to dentistry	4.29	.713
Regular and proper toothbrushing	4.54	.584
Oral care by specialist	3.99	.760
Ingestion of healthy food for oral health	3.81	.865
Innately healthy mouth	4.12	.784
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dentistry	4.05	.800
Total	24.79	4.506

분석, 요인분석(Varimax 회전방식)을 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전체 설명력은 65.6%였다. '요인 1'은 3개의 문항으로 전체 자료의 45.0%를 설명하고 있으며 '관리 중요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0.74였다. '요인 2'는 3개의 문항으로 '인지 중요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0.69의 신뢰도, 설명력은 20.6%이다.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측정항목이 해당 요인에 묶이는 요인적재 값이 0.6 이상을 보여,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76명(88%), 남성 24명(12.0%)이었다. 연령은 40대가 63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48명(24.0%), 50대 이상은 43명(21.5%)이었다. 학력은 전문대(제)졸 이상이 155명(7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는 45명(22.5%)이다. 직종은 영양보호사가 74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 직업군 68명(34.0%), 기타

직업군 58명(29.0%)이었다.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은 무경험자가 121명(60.5%)으로 유경험자 79명(39.5%)보다 많았다(Table 1).

2.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분석 결과 24.79(총점 30)였다. 문항별 평균은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이 4.54±0.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기적 치과내원'이 평균 4.29±0.71, '구강건강 선천성 영향'이 4.12±0.78이었으며,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은 3.81±0.86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요인분석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요인분석 결과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 '구강건강 선천성 영향', '기관과 치과 의료기관의 치료 연계'는 관리 중요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정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 '전문가 구강관리'는 인지 중요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The factor analysis of the perception toward the importance of elderly oral health care

		Classification	Factors 1	Factors 2
Importance factors about managerial factors		Ingestion of healthy food for oral health	0,856	·
		Innately healthy mouth	0,771	·
		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dentistry	0,676	·
Importance factors about cognitive factors		Regular visit to dentistry	·	0,86
		Regular and proper toothbrushing	·	0,78
		Oral care by specialist	·	0,72
		Eigenvalue	2,70	1,236
		Explained variance(%)	45,0	20,6
		Cumulative variance(%)	45,0	65,6
		Cronbachs alpha	0,74	0,69

Factor analysis used the principal components extraction method with varimax rotation.

Table 4. The distribution of the perception about the importance of elderly oral health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Importance factors about cognitive factors		p ¹⁾	Importance factors about managerial factors		p
			High [†]	Low [‡]		High [†]	Low [‡]	
			Gender	Male		24	21(87,5)	
	Female	176	142(80,7)	34(19,3)		141(80,1)	35(19,9)	
Age	20-29	46	35(76,1)	11(23,9)	0,521	36(78,3)	10(21,7)	0,291
	30-39	48	39(81,3)	9(18,8)		34(70,8)	14(29,2)	
	40-49	63	51(81,0)	12(19,0)		52(82,5)	11(17,5)	
	50≤	43	38(88,4)	5(11,6)		37(86,0)	6(14,0)	
Education (Include in school)	High school graduate	45	37(82,2)	8(17,8)	0,887	37(82,2)	8(17,8)	0,607
	More than junior college	155	126(81,3)	29(18,7)		122(78,7)	33(21,3)	
Job classification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74	63(85,1)	11(14,9)	0,235	61(82,4)	13(17,6)	0,773
	Nursing profession	68	51(75,0)	17(25,0)		53(77,9)	15(22,1)	
	Other profession	58	48(84,5)	9(15,5)		45(77,6)	13(22,4)	
Experience in seniors' oral health care education	Yes	79	64(81,0)	15(19,0)	0,886	67(84,8)	12(15,2)	0,133
	No	121	99(81,8)	22(18,2)		92(76,0)	29(24,0)	

^{†‡} Low and high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p-values were analysed by χ^2 -test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에 관한 분석시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평균에 근거하여 12점 이상의 경우 '상', 12점 미만인 경우 '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중요 요인'의 분석결과 인지도가 '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21명(87,5%), 여성 142명(80,7%)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35명(76,1%), 50대 이상 38명(88,4%)이었다. 학력별은 고등학교 이하는 37명(82,2%), 전문대(재)졸 이상은 126명(81,3%)이었고 직종별은 요양보호사 63명(93,2%), 간호

직업군 51명(75,0%), 기타 직업군 48명(84,5%)이었으며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 유경험자는 64명(81,0%), 무경험자는 99명(81,8%)이었다(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 중요 요인'의 분석결과 인지도가 '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8명(75,0%), 여성 141명(80,1%)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36명(78,3%), 30대 34명(70,8%), 50대 이상 37명(86,0%)이었으며, 학력별은 고등학교 이하 37명(82,2%), 전문대(재)졸 이상 122명(78,7%)이었다. 직종별은 요양보호사 61명(82,4%), 간호 직업군 53명(77,9%), 기타 직업군 58명 중

45명(77.6%)이었다($p < 0.05$).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경험자는 67명(84.8%), 무경험자는 92명(76.0%)이었다($p < 0.05$) (Table 4).

총괄 및 고안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병에 이환되기 전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질병 발생 후에는 구강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습관화해야 하며, 정기적인 치과의료기관 내원을 통한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우와 노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문제점 등으로 이를 실천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구강건강 관심도에 따라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인식변화 등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책임의식이 약화되었고 특히 질환과 장애를 가진 노인부양의 문제는 전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노인인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으며⁹⁾, 이로 인해 가족의 부양 부담은 감소되고, 요양시설 이용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¹⁷⁾. 치매, 중풍 등의 노인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직접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 인력 등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¹⁸⁾, 이들을 통한 건강, 구강건강관리는 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에 근거하여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를 조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7.3배 많았고, 연령은 20-50대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직종은 요양보호사가 74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노인을 케어하는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있으며, 상호 간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사자수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의 생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 구강건강관리 지식과 자가구강관리법을 노인들에게 실천하도록 하며, 구강보건 전문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실습이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교육경험은 '경험이 있다'가 39.5%로 종사자들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적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치치와 관리를 시행하고 구강보건실을 갖추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운영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 등¹⁹⁾도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구강보건인력의 관심과 참여 및 구강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분석결과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기적 치과내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기관 종사자들이 정기적 검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김 등²⁰⁾의 연구에서 제시된 치과치료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치과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이 열악한 구강환경에 놓인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치료연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 않음을 토대로 지역사회보건소와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에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협조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가 구강관리'는 다른 문항보다 인지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전문인력 배치는 필수적이다. 최²¹⁾의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심화 교육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노인구강건강행위의 실천율이 낮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 등²²⁾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역사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연구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진료가 어렵고 구강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인의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에서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섭취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열악한 구강환경으로 섭취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잇몸과 구강점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식단 관리가 필요한 것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분석 결과 '정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 전문가 구강관리에 관한 '인지 중요 요인'에서는 남성, 50대 이상, 요양보호사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

구강건강 실천성, 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치료 연계'에 관한 '관리 중요 요인'에서는 여성, 50대 이상, 영양보호사,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유경험자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가 '인지 중요 요인과 관리 중요 요인'에서 인지도가 조금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고려하였을 때²³⁾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관리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경험이 없는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은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이 구강보건 인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면에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에게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관리 실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양 등²⁴⁾의 연구에서도 요양시설의 노인은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추후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요양시설의 간병인과 간호 인력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의 시행과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검진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일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소수 기관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영양보호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타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나 그 대상이 각 직종의 구강건강 인지도를 반영할 만큼의 표본이 되지 못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최소화하였으나 인지도뿐만 아니라 교육, 실천 등 체계적인 연구설계 보완이 필요하다. 자가구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보호자와 영양보호사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인지도와 구강보건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 교육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인지도 변화를 통한 관심도는 증가될 수 있으나 실천행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

구강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부산) 지역의 일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하여 SPSS 18.0 Program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여성이 176명(88%), 연령은 40대가 63명(31.5%), 학력은 전문대(재)졸 이상 111명(55.5%), 직종은 영양보호사 74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21명(60.5%)이었다.
2.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는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이 4.54 ± 0.58 로 가장 높았고, '정기적 치과내원'이 평균 4.29 ± 0.71 이었으며,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은 3.81 ± 0.86 으로 가장 낮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중요 요인' 분석결과 남성(87.5%), 50대 이상(88.4%),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82.2%), 영양보호사(93.2%)의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p < 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 중요 요인'의 분석결과 여성(80.1%), 50대 이상(86.0%),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82.2%), 영양보호사(82.4%),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유경험자(84.8%)의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p < 0.05$).

이상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인지도가 노인의 구강관리 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인지도 변화를 통한 관심도는 증가될 수 있으나 실천행위에 한계가 있는 바 구강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력배치의 필요성도 제안된다.

References

1. Yang SB, Moon HS, Han DH, Lee HY, Chung MK,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J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2008;46(5): 455-69. <http://dx.doi.org/10.4047/jkap.2008.46.5.455>.
2. Kim SH, The effects of lifestyle and behavior-specific cognitions, affect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Doctoral dissertation], Gyeongbuk: Univ. of Daegu Haany, 2010.
3. Lee JC, Park JS, Kim GH, Factors associated with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elderly,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010; 27(2): 121-39.
4. Lee SM, Choi SI, Effect of health-promoting behaviors of the elderly women o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J Korea Contents Associ* 2012; 12(7): 203-14.
5. Lim CM, Korea Health Statistics 200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2, 1st ed,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471-80.
6. Kim KE, Choi MH, The relation of salivary secretion, the oral care and the oral malodor, *Nurs Sci Res Institute CA Univ* 2001; 5(2): 55-60.
7. Aleksejunience J, Holst D, Grytten JI, Eriksen HM, Causal patterns of dental health in populations: an empirical approach, *Caries Res* 2002; 36(4): 233-40.
8. Kim YN, Kwon HK,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of Korean low socio-economic elderly,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4; 28(2): 257-65.
9. Jung YM, Kim SM, Lee HJ, Cho YH, Lee SG, Kim NH, Oral health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4): 727-34.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egiver standard textbook (reviced edition), 2014; 297-301.
11. Park MS, Educational needs in the provision of oral care by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0; 12(1): 72-80.
12. Mo HS, Choi KB, Kim JS, Knowledge of oral health and its predictors in nursing staff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08; 15(4): 428-737.
13. Park KA, Choi KS, Park MS, The Effects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for nursing staff on halitosis and nutrient intake of the elderly in a long-term care facility, *J Korean Diet Assoc* 2011; 17(3): 243-58.
14. Park KA, Choi S, Park MS, The effects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for nursing staff on halitosis and nutrient intake of the elderly in a long-term care facility, *J Korean Diet Assoc* 2011; 17(3): 243-58.
15. Cho NI, Park SY, Lee HS, Oh HW,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in Seoul,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 37(1): 16-24.
16. Lee SJ, Kim CH, Choi GY, Influential factors to the oral hygiene behavior and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Korean J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2; 6(1): 39-51.
17. Nam HE, Lim CH, Ryu HG, Bae SK, Kim SH, Kim SH, et al, Case study on network of manpower-training related to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focus on education management about long-term care-giver of yong do gu in busan city, *Korean Soc Health Ser Manage* 2008; 2(1): 125-36.
18. Kim SH, Nam HE, Park SJ, Effects of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their stay-at-home aged welfare service, *J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12(4): 282-91.
19. Cho NI, Park SY, Lee HS, Oh HW,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in Seoul,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 37(1): 16-24.
20. Kim SD, Choi MS, Gwon JM, According to oral symptoms and oral healthcare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 *J Korean Acad Dent Hygiene* 2012; 14(2): 73-84.
21. Choi SH, The effects of professional oral health care on oral health states of long-term care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 [Doctoral dissertation], Gyeongbuk: Univ. of Yeungnam, 2012.
22. Shin RH, Bae EK, Choi SH, Park YY, Tacaci O, Jung MG, Analysis of current nursing homes in Korea and to assess the role and prospect of dentists in comparison to Japanes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8; 46(1): 83-91.
23. Noh EM, Jeon ES, Ko SY, 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havior to Self-Efficacy among the Elderly, *J Dental Hygiene Science* 2014; 14(2): 167-175.
24. Yang SB, Moon HS, Han DH, Lee HY, Chung MK,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8; 46(5): 455-69.

